



## 책과 책읽기의 모든것 담은 책문화 총서 한국과 서양의 명저목록도 권말에 수록

—「책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낸 안도섭씨

이 책 그 사람

“괴테는 80년을 배웠는데도 독서의 방법을 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책읽기가 지난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지침이 될 만한 국내저자의 책이 거의 없어 4, 5년 전부터 나름대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때마침 책의 해를 맞아 기획된 ‘책의 문화총서’의 하나로 출판된 것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독서론인 「책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소나무)를 펴낸 시인 안도섭씨(61)는 책은 물론 출판역사와 독서에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굵어 모았고, 이 분야의 명저인 파야게의 「독서술」이나 쇼펜하우어의 「독서론」 등은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책을 “되도록이면 천천히 그 의미를 반추하며” 읽으라는 파야게의 주장이나, “책에 길들여지면 개성적 사고력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독서에 기대지말라”고 강조하는 쇼펜하우어의 독서체험론에 자신이 터득한 독서론을 가미해 한편의 책을 엮은 안도섭씨는 ‘독서부국주의론’을 펴나.

“88올림픽이 끝나고 한 스포츠기자가 일본에 가서 체력이 국력이므로 한국이 곧 일본을 앞지르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하자 냉소를 머금은 일본인은 책을 읽지 않는 한국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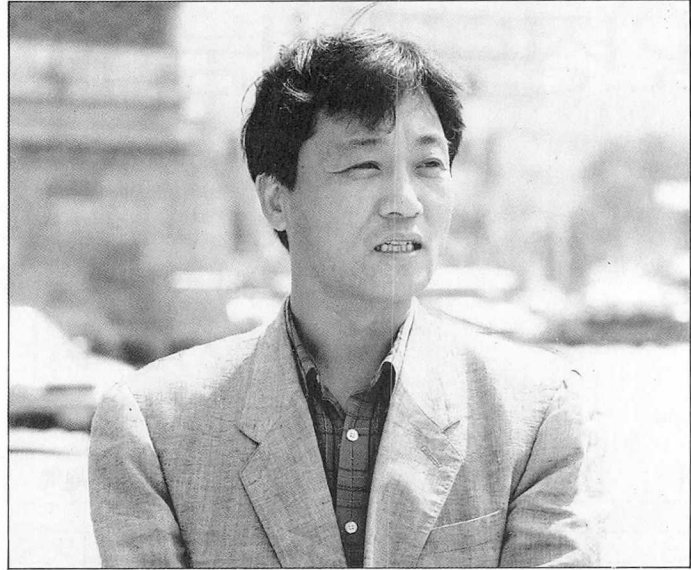
외국의 독서론이 너무 전문적인데 반해 우리의 몇권 안되는 책들은 또 너무 피상적인 것이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집필했다는 안도섭씨는 이 책의 전반부에서 “독서는 한낱 수단일 뿐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힌다.

이같은 독서의 정의에서 출발해 책에 얽힌 이야기와 책읽기의 기본인 음독을 비롯한 베타읽기, 라이프니츠 독서법 등 각종 독서법을 다룬 저자는, 장서와 서재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한다. 또 ‘베스트셀러의 허구’란 장에서는 스탕달의 「적과 흑」이 출판 당시 파리의 서가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을 때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1백만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였지만, 현재는 그 반대임을 예로 들면서, “한때 바람을 일으키다 저절로 사라지는 베스트셀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중국 명대에 진사벼슬을 한 주대소란 사람이 귀서인 「後漢記」을 아내와 ‘교환’한 이야기나 찢겨진 「잔다르크전」을 길에서 주워 읽은 뒤 작가의 길을 걷게 된 마크 트웨인의 일화 등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방대한 범위의 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망라돼 있어 재미있는 읽을거리로서의 매력도 지닌다. 이밖에 책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어떻게 책을 찾아 어디서 읽을 것인가 등등의 책읽기 전과정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있으며, “책은 정신의 음식이다”(소크라테스)와 같은 책에 관한 명언을 실는 한편 ‘한국과 서양의 명저목록’을 권말에 덧붙여 독서에 익숙치 않은 독자들의 독서계획에 도움을 준다.

2년전 전업작가로 나서, 현재 해방전부터 6·25까지의 지리산의 역사를 다루는 대하소설을 집필 중인 안도섭씨는 “아직은 외피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독서운동이 한시바빠 제 궤도를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한다. — 최태원 기자



## 정신적 삶의 진리 탐구한 賢者들의 생애 마틴 부버 등 15명의 영적 지도자 소개

—「20세기의 신비사상가들」번역한 양역관씨

이 책 그 사람

내가 내가 아니라는 말만큼 이해하기 힘든 말은 없다. 일상적인 자아를 전세계보다 귀중한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삶을 꾸려가는 평범하면서도 선량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신비주의자, 성자, 오컬티스트라 불리는 이들은,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영국대생의 비교종교학자 앤 밴크로프트가 1975년 펴내고 최근 국내에서 번역된 「20세기의 신비사상가들」(정신세계사)은 물질과 과학문명의 시대에 정신적 삶의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해온 열다섯명 영적지도자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이 패러독스적인 명제에 대해 해답을 들려준다. 그 이름은 일반의 몰이해 속에 불운한 삶을 살았거나 혹은 철학자 소설가로 당대 대중의 찬사를 받기도 했던 울더스 헉슬리, 앨런 왓츠, 토머스 머턴, 구르지에프, 마하리쉬, 마틴 부버, 다이온 포춘, 루돌프 슈타이너, 마더 테레사, 초감 트롱뵈이다.

“이 책에 등장한 신비주의자와 현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정의했을 때 그때의 나란 누구이고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아이덴티티’의 수수께끼를 풀어 내는데 일생을 바친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언어에 대한 그들 각각의 다채로운 해석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방법론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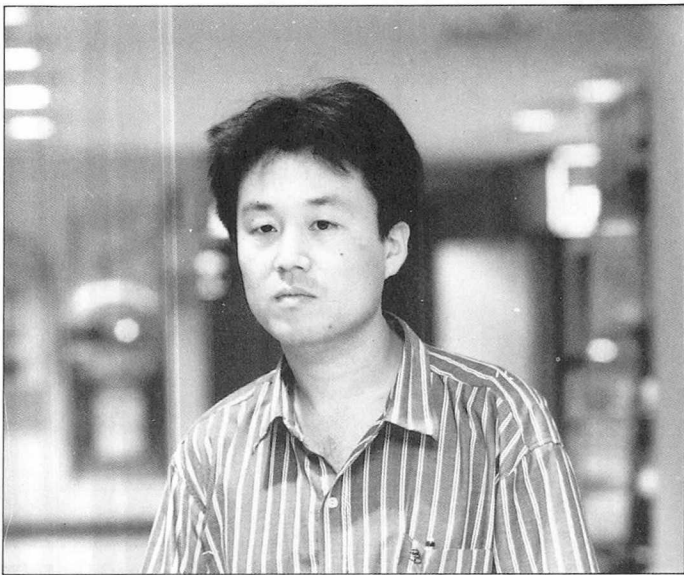
번역자 양역관(38)씨는 인간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는 숨겨져 있어 본인도 모르는 것이라는 구르지에프의 정의를 예로 든다. 구르지에프는 인간이 모든 일, 어떤 반응,

모든 사고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는 한, 인간은 단순한 하나의 걸어나가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에게 실재감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격이 생성된다고 구르지에프는 말한다. 이처럼 아이덴티티를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앨런 왓츠는 만트라를 암송하거나 조용하게 좌선을 하는 등 전통적인 방법을 장려하는 반면, 다이온 포춘과 루돌프 슈타이너는 힌두교나 불교의 요가기법을 통해 혼이나 마음을 발달 시킴으로써 자아를 만나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는 이들 신비사상가들이 말하는 주제와 내용을 그들 개개의 정신적 특성과 종교적 속성에 따라 묶어둠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훨씬 쉽게 하였다. 특히 이들이 거처간 생애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삶의 방식은 그들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쳐와 지금과 같이 하나의 ‘완성된 가르침’으로 세인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는지를 한눈에 살필 수 있게 기술해 놓았다.

“나와 나의 아이덴티티 사이에는 우리가 자각 못할 뿐 거대한 벽이 있다는 것이 이들 신비사상가들의 공통된 전제입니다. 열반이나 천국, 해탈, 지복, 그리고 해방은 그 벽의 한 쪽에서 스스로가 완료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지요.”

역자는 심리학, 사회학, 신비학 등 인간과 문화를 해석하는 공부를 하면서 이 분야의 번역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나오는 슈타이너의 「어떻게 초감각적 세계의 인식을 획득할 것인가」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바 있다. — 정혜옥 기자



## 미래의 시점에서 소설화한 광주와 통일 통일후의 북한 남한식민지로 그려 이색적

—「시간속의 도적」 펴낸 채영주씨

이 책 그 사람

부산 태생에 정치학과 출신의 소설가 채영주(32)씨의 장편 「시간속의 도적」(열음사)은 광주와 통일의 문제를

다룬 작품집이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통일 원년' 3년인 1998년이며 2047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박정재'라는 미래인도 등장한다. 이러한 주제와 시·공간적 배경을 한 작품 속에서 다루기 위해 "아무래도 방법적으로 약간 비정통적인, 심지어는 SF라고까지 얘기되는 방법"이 사용된다. "후기자본주의 시대, 혹은 방향실종의 시대라는 문학 외적 요소가 젊은 작가들에게 문학 자체를 가볍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새로운 양식으로 형상화할 것인지가 90년대 작가들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저자는 그 '새로움'이란 '가벼움'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세대작가들의 새로움 없는 가벼움은 큰데라, 하루키 등에게 받은 충격을 채 체화시키지 못한 데서 나온 "과도기적 양상"이란 게 그가 내리는 90년대 문학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따라서 「시간속의 도적」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한국적인 미래소설이라는 가벼운 양식에 담아보고자 한 문제의식의 소산인 셈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실험성이 강하면서도 작품의 완결성에 흠집이 생긴 곳이 없어 흥미있게 끝까지 읽힌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적이고 주목할 만한 것은 통일 후의 북한의 미래가 남한의 식민지로 그려진다는 데에 있다. 작가가 自序에서 "기억력이 나빠서 나는 불과 얼마 전의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까닭인지 미래는 조금 볼 줄 안다"고 밝힌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북한의 통치체제는 흔적없이 남한의 체제로 흡수되어 80년의 광주처럼 "팔시받는 땅, 낙후된 땅, 일부 동족의 이기적인 성장욕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당해야 하는 땅"이 되고 만다는 것. 왜곡된 지형 안에서 흡수통일론을 비롯한 외형적 통일방법론의 통일논의만이 무성한 요즈음, 통일한국의 미래가 북한의 내부 식민지화로 귀결된다는 작가의 예언이 설득력있게 전달된다.

작가는 신군부가 광주를 버리고 나머지 지역을 통합해 권권안보를 유지한 것처럼, 북한을 버리고 남한의 기득권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벌써부터' 걱정한다. "잘 나가던 서독경계가 어려워진 이유"를 잘 아는 남쪽의 기업인·정치가들이 과실을 나누는 정도가 아닌 큰 짐을 떠맡게 되는 통일을 찬성할 리 만무하다는 것을 작가는 예견한다. 한 사회학자에 의하면, "명시적인 논의는 없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 패권국가로 처리한다는 방식의 통일논의가 분분하다"고 한다.

이같은 미래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채씨는 소설 속에서 "혼돈이론에서 말하는 나비효과"를 제시한다. "북경 하늘의 나비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에 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설을 애써 믿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비 중에서도 가장 가볍다 할 우유배달부, 구두닦이, 웨이터 등의 등을 떠밀어 소설의 무대로 올려 놓는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훗날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래서 "낙관적 허무주의자"이다.

—김중식 기자



## 삶의 뒷면까지 챙겨보는 아름다운 수필집 열린 마음 지향하는 아포리즘 한데 모아

—「소망은 내 지친 등을 떠미네」 낸 이정하씨

이 책 그 사람

수필집 「우리사는 동안에」(고려문화사)와 시집 「우리 사랑은 왜 먼산이 되어 눈물만 글썽이게 하는가」

(책나무) 등으로 독자와 가깝게 지내던 시인 이정하씨(32)가 또 한편의 수필집을 펴냈다. 「소망은 내 지친 등을 떠미네」(흔겨레)라는 다소 감상적인 제목으로 묶여져 나온 이번 책은 생의 뒷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 하는 아포리즘의 성격이 강한 글모음집이다.

이정하씨가 글의 소재를 잡아내는 방식은 특별하지 않다. 생활의 주변에 깔려 있는 웃음이며, 슬픔, 걱정, 분노 등이 그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소재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글은 난해하지 않다는 미덕을 발휘한다. 하지만 그의 글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견해에 따라 대중성에만 치우친 글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하다. 그도 그럴것이 80년대 후반부터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히고 있는 작품들 대부분이 문단에 얼굴도 내밀지 않은 얼굴없는 작가들의 책이었다는 사실도 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듯하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그의 견해는 이렇다.

"물론 졸속으로 돈을 벌기 위한 글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문단도 작품의 대중화에 대해 꼼꼼히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글이란 것이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행위이겠지만, 그것이 현학적으로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다."

그가 일정부분 대중적인 작품을 두둔한다 하여 그가 그런 부류의 작품을 쓰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가 독자를 대하는 입장은

"독자의 눈과 같은 위치에 글쓰기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소망은...」은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공통적인 주제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곳으로 이끄는 데 있다. 1장에서는 고통이 있는 속에서도 "저 너머에 펼쳐져 있는"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2장과 3장에서는 현실이 어둡고 힘들더라도 그 시련이 있으므로 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장에서는 이 사회는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한데 얽혀 살아가는 마당임을 인식시켜주고, 연이어서 5장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간에 받아들이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이 더 고귀하다는 보편성에 입각한 글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소망이 있기에 결코 좌절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은 은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그의 글에 내비친 의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가 제시하는 '열린 마음'으로의 지향은 여러편의 글에서 각기 색다르게 각색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보통의 수필과 차별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방대한 자료의 흔적이 여기저기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동서고금을 이리저리 휘저어 다녔던 그의 독서편력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어 독서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찮게 없는 소재로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정하씨의 글이 많은 독자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한다.

—이성수 기자